

Multilingual Electronic Newsletter

多言語メールマガジン

かごしま南の風便り



Kagoshima Southern Wind Tidings

VOL.175

1 국제교류원 칼럼

- 태평양상에 빛나는 짙은 녹색의 보석: 아마미오시마(奄美大島)●
- 가고시마현 국제교류원 스노든 요제프(영국 출신)

2 지사 관련 새소식

- 한국 전라북도의 김관영 지사가 방문하였습니다. (12 월 16 일)
사쓰마 스튜던트 파견 사업 참가자가 방문하였습니다. (12 월 26 일)

3 가고시마 국제교류 A-Z

- 대만 핑둥현의 「2022 핑둥 크리스마스」에서 가고시마를 PR 하다.

4 관광 가고시마 제철 정보

- 다이콘 야구라(미나미큐슈시)

●태평양상에 빛나는 짙은 녹색의 보석: 아마미오시마(奄美大島)●

- 가고시마현 국제교류원 스노든 요제프(영국 출신)

가고시마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1 시간 정도 남쪽으로 향하다 보면 망망대해 속 짙은 녹색의 보석 「아마미오시마(奄美大島)」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마미오시마는 달달한 풍미를 지닌 흑당 소주와 세계 3대 직물 중 하나라고 불리는 오시마쓰무기(大島紬)의 본고장으로도 유명하지만, 지난 2021년에는 독특한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을 인정받아 도쿠노시마(徳之島), 오키나와섬 북부, 이리오모테지마(西表島)와 함께 세계자연유산으로도 등재되었습니다.

저는 작년 12월 중순, 아마미오시마에 방문할 기회가 생겨 직접 이곳의 매력을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제가 방문했던 장소들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마미오시마가 모습을 드러내다!

(1) 아마미 파크(奄美パーク)

아마미공항에서 5분 정도 떨어진 장소에 아마미오시마의 필수 코스인 아마미 파크가 있습니다. 아마미 군도의 관광 거점 시설로 「바다의 길」, 「섬의 길」, 「숲의 길」 등 다양한 전시존을 둘러보다 보면 아마미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진과 모형, 그리고 인터랙티브 형식의 영상 등을 조합한 전시이며, 다양한 형태로 아마미의 문화와 자연 환경을 소개합니다. 또한, 전시품의 QR 코드를 찍으면 다양한 언어로 전시품의 설명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종합 전시홀 옆에 있는 이벤트 광장에서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크리스마스 파티와 패션쇼 등의 다양한 이벤트가 열립니다.



종합 전시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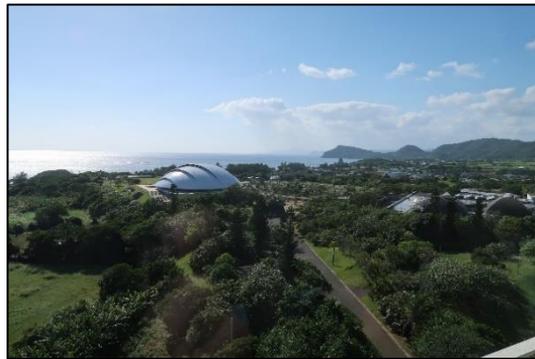
이벤트 광장

파크 내에는 다나카 잇손(田中一村) 기념 미술관도 있습니다. 다나카 잇손은 50 대가 되면서 아마미오시마로 이주하여 호반새 등의 아마미오시마를 대표하는 들새를 독특한 화풍으로 그렸습니다. 다나카 잇손 기념 미술관은 작품 수가 400 점 이상으로 계절별로 다양한 작품을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다나카 잇손 동상

개인적으로는 아마미 파크의 전망대에서 바라본 풍경이 특히 인상에 남습니다. 아마미에서의 모험을 시작하기에는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미 파크 전망대

(2) 하라하부야(原ハブ屋)

아마미오시마는 반시뱀(ハブ, 하부)이라는 독사로 유명하며, 섬 안에는 10 만 마리의 반시뱀이 서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하라하부야는 1948 년에 창업한 반시뱀 전문점으로 독특한 반시뱀 가공품을 판매하면서 하루 3 번 반시뱀 쇼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곳의 상품들은 다양한 브랜드와 협력하여 고급스러움이 흘러넘칩니다.



내가 정말 뱀을 들어올린 걸까...
아니면 착각인 걸까...

반시뱀 쇼는 매우 흥미로운 체험이었습니다. 쇼의 진행자인 하라 다케히로(原 武広) 씨는 적절히 유머를 섞어 가며 다양한 뱀들을 소개하였고, 실제로 반시뱀을 포획하는 모습도 선보였습니다. 쇼는 일본어로 진행되지만, 영어 설명서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반시뱀 쇼의 진행자, 하라 씨

특히 저를 놀라게 했던 것은 하라 씨의 한 발언이었습니다.

「반시뱀은 숲의 수호신이에요.」

이것은 하라 씨만의 생각이 아닌 저와 이야기를 나누는 많은 도민들의 공통적인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물론 모두가 위험한 동물인 것은 알고 있지만, 섬의 생태계를 지키는 존재로서 도민들에게는 매우 소중한 존재인 것이죠.



숲의 수호신 「반시뱀」

(3) 아마미 자연 관찰의 숲(奄美自然観察の森)

해안가를 벗어나 다쓰고초(龍郷町)의 숲으로 향하다 보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해안가의 파도 소리는 어느덧 자취를 감추고 나뭇잎 소리와 루리카케스 새의 울음 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곳은 바로 「아마미 자연 관찰의 숲」입니다. 마치 수천 년 전의 원생림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고는 하지요.

숲의 관에는 아마미오시마의 독특한 생태계를 소개하는 전시실이 있습니다. 1~2 월에는 히칸자쿠라(벚꽃의 일종)가, 여름에는 반딧불이 등이 전시되어 사계절의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숲의 관



딱따구리



용나무



도롱뇽

전시실을 한 바퀴 돌고 난 후 본격적으로 숲에 들어서니 자연 그대로의 동식물들을 만나 볼 수 있었습니다. 숲에 들어선 순간, 가이드님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숲은 오감으로 즐기는 곳입니다.」

가이드님께 안내를 받은 덕분에 들새의 울음 소리도 듣고, 「교살자 무화과 나무」라고 불리는 용나무의 불가사의한 모양도 관찰하며, 땅에 떨어져 있던 모밀잣밤나무의 열매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른 전망대에는 절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망대까지의 길은 배리어 프리라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장소입니다.



전망대에서 바라본 풍경

(4) 아미오시마의 선술집

어느새 날이 저물고 아미오시마에서의 첫째 날도 그렇게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가기 전에 어느 선술집에 들렸습니다.

갯기름나물 튀김과 아부라소멘 등의 섬 요리를 맛보았는데, 가고시마의 본토 요리만큼이나 매우 맛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미오시마를 대표하는 여러 종류의 흑당 소주를 미즈와리(물을 타서 묽게



흑당 소주

함), 소다와리(탄산수를 타서 뭉게 함)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시음할 수 있었는데, 그 부드러운 매력에 푹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첫째 날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시마우타(아마미 군도에서 불리는 민요)를 들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조용히 섬의 선율에 귀기울이며 분위기에 취해 있었지만, 점점 선술집의 분위기가 무르익으며 저를 포함한 손님 모두가 「dotkoi, dotkoi」라고 노래를 부르며 춤추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176 호에서 계속됩니다.)



식사도 술도 멋진 밤이었습니다.

지사 관련 새소식 - The Governor's Movements

●한국 전라북도의 김관영 지사가 방문하였습니다.●

지난 12월 16일, 본 현과 30년 이상 교류를 맺고 있는 한국 전라북도의 김관영 지사가 현청을 예방하였습니다.

또한 다음날인 17일에는 전라북도의 전통 공예품 등을 전시하는 심수관 명예총영사관 전라북도 전시 기념식이 심수관요(히오키시)에서 개최되어 시오타 지사도 내빈으로 참석하였습니다.

시오타 지사는 심수관요에 대해서 「42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이곳 가고시마의 땅에서 사쓰마야키 가마의 불을 지켜 왔으며, 심수관 가문의 연고지인 전라북도와의 교류에도 힘써 주고 계신다」라고 소개하였습니다.

테이프 커팅식을 진행한 후에는 한지로 만든 장롱과 칠기 등을 함께 둘러보았습니다.



좌: 김관영 지사 / 우: 시오타 지사



기념식(히오키시 심수관요)

●사쓰마 스튜던트 파견 사업 참가자가 방문하였습니다.●

지난 12월 26일에는 8월 중 13일간 영국 교육 체험 프로그램(온라인)에 참가한 현내 고등학생 4명이 활동 보고를 위해 시오타 지사를 예방하였습니다.

참가 학생들은 「세계 최첨단의 기술 강의를 영어로 들을 수 있었으며, 동기 부여가 되었다」, 「자신의 꿈에 한 발짝 다가가는 기회가 되었다」 등의 이야기를 전하였습니다.

또한 시차가 있는 상태에서 강의를 들은 점, 온라인으로 진행된 토론,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진 영어의 어려움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참가 학생 모두가 이번 경험을 토대로 가고시마와 일본을 위해 활약해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대만 핑둥현의 「2022 핑둥 크리스마스」에서 가고시마를 PR 하다.●



12 월 23 일부터 25 일까지 3 일간, 대만 핑둥현의 핑둥 공원에서 개최된 「2022 핑둥 크리스마스」에 가고시마 부스를 설치하여 관광 팸플릿과 노벨티를 배부하였습니다.

이번 활동은 핑둥현으로부터 출전 요청을 받아 전개되었으며, 대만에서의 본 현의 인지도 향상과 코로나 이후의 고객 유치 등을 위해 직원이 도항하여 가고시마현을 PR 하였습니다.

매년 크리스마스 시기에 개최되는 이벤트로 2022 년의 테마는 「빙설 세계」였습니다.

무대 이벤트에는 핑둥현의 潘 지사도 참가하였으며, 기간 중에는 일일 평균 5000 명 이상이 방문하여 성황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좌: 가고시마 PR 부스 / 우: 회장 내 illumination

●다이콘 야구라(미나미큐슈시)●



오늘의 사진은 미나미큐슈시의 겨울 풍물시 「다이콘 야구라」입니다!

매년 12월부터 1월 무렵까지 미나미큐슈시에 등장하는 「다이콘 야구라」. 광활한 밭에서 많은 양의 무를 말리는 광경은 그야말로 압권입니다.

Photo by @joe_gram315 (출처: Instagram)

멋진 사진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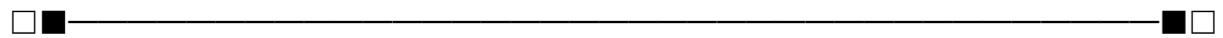
가고시마현청 홈페이지 <http://www.pref.kagoshima.jp/>



편집후기 (가고시마현 관광 · 문화스포츠부 국제교류과)

이번 달 「가고시마 남쪽바람소식」은 어떠셨는지요?

앞으로도 저희 가고시마현청 메일 매거진은 가고시마와 여러분을 연결하는 정보의 가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편집자 일동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고시마 남쪽바람소식 게시판」에서는 가고시마에 관한 화제를 다음과 같이 모집 및 게재합니다.

1. 가고시마 포토 갤러리

가고시마만의 매력이 담긴 사진이나 해외에서 발견한 가고시마의 사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진에 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더미처럼 쌓인 화산재 봉투)

2. 가고시마 생활의 지혜

가고시마의 생활에 관한 정보를 공유해 주십시오. (예: 사쓰마아게를 맛있게 먹는 법, 화산재 대처법)

이 밖에도 독자 여러분과 공유할 여러분의 다양한 정보를 기다립니다.

▲▽▲▽ 기사 제공 및 문의처 ▲▽▲▽

일본 가고시마현 관광 · 문화스포츠부 국제교류과

〒 890-8577 가고시마시 가모이케 신마치 10-1

TEL: +81-99-286-2306

FAX: +81-99-286-5522

↓ 전자메일 주소

영 어 : cir1@pref.kagoshima.lg.jp

한국어 : cir3@pref.kagoshima.lg.jp

일본어 : minami@pref.kagoshima.lg.jp

본 기사의 저작권은 가고시마현에 있습니다. 무단게재와 불법복사를 금합니다.